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Korea Intelli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te 2008-2018

10년사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Korea Intelli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te 2008-2018

10년사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본관 전경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대구주행시험장 전경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대구주행시험장 전경

10년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Korea Intelli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te 2008-2018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목차

1. CEO Message	10
2. 원장 발간사	12
3. 축사	14
4.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의 씨를 뿌리다	20
5. 주행시험장을 시작하다	36
6.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를 준비하다	52
7.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전기차)를 향해 나아가다	60
8. KIAPI의 주요 시험장(PG) 및 보유장비	62
9. KIAPI의 조직	64
10. MOU 리스트	68
11. 회원사 리스트	70

1

CEO Message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이사장

2008년 4월,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시작으로, 2014년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으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해 4월, 주행 시험장을 개장하면서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범 10주년을 기념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화로 국내 완성차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공감하는 자동차부품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이 대구·경북 자동차부품기업 통합 재단법인을 탄생시키며, 자동차 부품업계로는 전국 최초의 재단으로 39만 4565㎡ 규모의 ITS(지능형 교통시스템)를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 성능을 테스트 하는 전용 시험장을 국내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부품산업은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전장화를 통해 지능화, 모듈화, 표준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R&D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10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차세대 자동차 개발의 지원 체계 및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있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달성군 등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전임 원장의 노력,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차세대 미래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성명호 현 원장에 이르기까지 기관장과 구성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부터 이사장을 맡아 온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탄생에 힘써 주신 지역 안팎의 인사들과, 10년을 하루같이 앞만 보고 달려온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지원기관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Be The BEST”의 희망찬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IAPI 10년사』가 자동차산업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역사로 남기고, 차세대 미래자동차 산업의 리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이사장 이충곤

2

원장 발간사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1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부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진흥원은 6년의 준비기간과 4년의 초기 출범기간으로 이루어진 10년을 거치면서 명실공히 대구지역 자동차 관련 주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자동차 기업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12만평의 넓은 주행시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체화 하신 분들의 의지와 함께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빛을 발하여 왔음을 이번 백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시험장이 건립되고 시험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과 원장,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감으로써 오늘까지의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자립 재정 상태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신 자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0년을 향한 발걸음은 지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흥원의 설립과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성명호

3

축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설립 10주년과 백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번 백서를 출간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이사장님, 원장님을 비롯한 집필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자동차 산업은 연결(Connectivity)·자율주행(Autonomous)·공유서비스(Shared service)·전기동력(Electric) 등 이른바 ‘C.A.S.E’로 불리는 대변혁기를 맞아 탈 것을 넘어 달리는 스마트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기업과 각국 정부는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몇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강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나, 최근 불확실한 통상환경, 신흥 경쟁국의 등장 등으로 또 다시 쇠락이나 재도약이냐는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전자·통신산업 생태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차로의 전환은 분명 기회요인으로, 앞으로 3~4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기차 대중화시대 조기 개막, 세계 수준의 자율차 경쟁력 확보, 미래차 기반 신산업 창출 등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시대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각종 평가장비를 구축·지원하고 있으며, 실도로 자율주행 실증환경도 구축하는 등 우리 자동차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튜닝카 드래그레이싱 대회와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미래차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지난 10년간의 도전과 발자취가 이번 백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이 백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전·현직 임직원 모든 분이 미래자동차산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10주년과 백서 발간을 축하하며,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심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인호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연창입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설립 10주년을 250만 대구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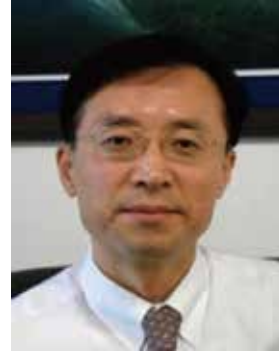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지난 2008년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자동차 연구지원기관으로 출발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자동차 부품 성능 시험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달성군 구지면에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기반 주행 시험장 구축을 시작으로 자동차 기술 평가와 시험을 위한 주요 시설을 갖추는 등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나아가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위한 플랫폼과 자율주행 실증도로 구축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미래자동차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맞아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의 대전환을 꾀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과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우리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쉬지 않고 달려온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을 보태어 차세대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 리더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우리시도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자동차산업 지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설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연창

초대원장



옛날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였는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설립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으니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산학연관이 함께하며 사업화 시켜간 세월을 포함하면 14여년이 되는 것 같아 사업단장과 초대원장을 역임했던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개별 기업이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미래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준비하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대 명제 하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서 계셨기에 가능했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업의 바쁘심에도 항상 함께 해주셨던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의 이충곤 이사장님과 초대 운영위원 회장님들,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김범일 전대구시장님과 권영진 시장님, 또 파견을 통해 지역 사회의 봉사를 허락해주신 신일희 총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공간이 크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발을 딛고 있거나 앉았거나 누워있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시간과 주어진 공간에서 같이하던 기업과 연구소, 대구시와 재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만든 곳이 바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된 구성원들이 기업 의뢰 시험과 연구 개발 시험이 밀려 시간을 쪼개어가며 벽차게 연구하는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모습에 짠한 마음도 들지만 그러한 흐름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는 매듭이 없지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을 꾸려가는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며 정리하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해서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나라 미래자동차 산업의 큰 버팀목이 되도록 크게 키우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매듭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인사를 가름합니다.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이선봉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연혁

- 2006** 02. : 영남미래자동차부품협의회 구성(2007.11까지 17차 회의 개최)
- 2007** 02.21. : 지역자동차부품업체 CEO 간담회(법인설립동의 및 추진 위임)
05.30. : 지능형자동차부품도시 선포식
- 2008** 02.20. :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참여기관 및 기업 45개)
05.06. : 재단법인 설립 등기(대구서부지원)
05.30. : 재단법인 출범행사
- 2009** 03.06. : 재단법인 명칭변경
/ (재)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재)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 2011** 04.04. : 시험장 기공식
05.26. : 2011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이충곤 이사장 선출 및 재단 임원 재선임)
- 2013** 11.13. : 사무실 이전(계명대학교공학4호관 → 신축건물)
12.09. : 넥센타이어 입주
12.13. : 시험장 건축 및 토목공사 준공
- 2014** 02.10. : 재단법인 정관변경(재단명칭, 대표자, 조직(사업단→원) 등)
/ (재)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03.06. : 제1대 원장 취임(이선봉)
04.02. : 시험장 준공식
11.15. : 제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튜닝카 레이싱 대회
- 2015** 01.24. : 제2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튜닝카 레이싱 대회
05.26. : 제2대 원장 취임(성명호)
11.19. : 제2회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
- 2016** 02.17. : 자동차융합 얼라이언스 사무국 개소 및 포럼
04.29.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자율주행자동차」 업계 간담회
10.15. : 2016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 2017** 03.22. : 르노그룹 차량 시험센터 구축 협약
10.15. : 2017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10.16. : 제3회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
11.23. :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10년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Korea Intelli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te 2008-2018

4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의 씨를 뿌리다

4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의 씨를 뿌리다

초기에 자동차용 주행시험장에 대한 요구는 2004년 3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자리(한국델파이 신중호 부장, 상신브레이크 손태관 부장, 평화산업 송윤철 부장, 대동공업 하창욱 소장, 평화발레오 허만대 이사, 경창산업 조경희 이사, 상공회의소 이종학 과장)에서 제기된 주행시험장 필요성에 대해 처음 검토되고 그 결과로 ‘대구경북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 건립 타당성조사 보고서(4만평 부지, 2만평 시험로 제시, 2005년 1월, 상공회의소 달성군지회 이종학 과장)’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경제성 검토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 사업기획

2004년도 들어서면서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에서는 13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구시는 지역에 주행시험장 구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2004년 6월 산업연구원에 ‘대구경북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의뢰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방향과 육성정책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결과로서 대구·경북지역부품업체의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에의 대비 및 육성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5년 말경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전략산업기획단에 자동차부품 Focus Group을 만들고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지역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06년 2월 계명대학교 주관으로 지역 자동차부품회사 CEO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구시의 ‘지능형자동차사업육성’ 정책(인프라구축, 연구개발, 산업화 지원 등) 추진주체로서의 산업체 역할 방안 및 사업추진단체 설립 등을 논의 하였으며, 현대기아협력회 대구분회 22개 업체와 경북분회 15개 업체가 참석하였다.

2006년 2월, 1996년부터 계명대학교에서 주관해 오던 ‘자동차부품기업 연구소장 협의회’와 연계 하여 영남 미래자동차 부품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에스엘 이수광 전무가 회장, DGIST 이선봉 박사가 간사를 맡았으며 계명대학교 김태권 교수 등 지역 7개 대학 교수, 지역 기업 12개사,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이 참여하였다.



영남 미래자동차 부품협의회

2006년 4월 13개 시·도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발표회를 하였는데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지역전략사업으로 기획된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화 지원 RIS 구축’ 사업을 DGIST 이선봉 박사가 발표하여 2006년 7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화 지원 RIS 구축은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였다. 이를 위해 대구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화 방안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하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하고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으로서 혁신 클러스터화의 필요성 검토 및 조성 방안 연구가 그 주요 내용이 되었다.

또한 산업연구원의 대구시 연구용역과제인 ‘미래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사업 타당성 조사’의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지역의 지능형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해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홍석준 팀장과 정재로 주무관, DGIST 이선봉 박사, 에스엘 이수광 전무,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 대구테크노파크 김요한 박사 등의 열정이 있었기에 지능형 자동차 부품 정책 연구 과제가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민선 4기 김법일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험장 건립사업이 반영되면서 주행시험장 건립 타당성 조사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개월간 진행 되었다. 국비는 초기에 156억 원으로 기획되었으나 지식경제부 심의 과정에서 74억 원으로 삭감되어 사업 차질이 예상되었지만 지역 국회의원인 이한구 의원(예결위 소속)과 이명재 의원(지경 위 소속)의 노력으로 30억 원을 추가 배정하여 104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예산이 결정 되었다.

2007년 2월 계명대학교에서는 대구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CEO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의 산업화에 대한 발표와 사업추진 법인설립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법인설립은 에스엘, 평화발레오, 경창산업에 위임하기로 하고 대표발기인으로 에스엘 이충곤 회장, 평화발레오 김상태 회장, 경창산업 손일호 회장이 추대되었으며 대구시장, 에스엘 외 36개 지역 업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대구에 경기도 자동차안전연구원 시험장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율자동차의 시험평가가 가능한 차별화된 지능형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건립하자는 제안은 초기에 DGIST 이선봉 박사가 낸 것이었다. 주행시험장 건립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선봉 박사가 계명대학교교수로 채용되면서 2007년 3월에 법인설립을 위한 TF팀 구성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TF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법인 설립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사무실은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내에 입주하게 되었다. 계명대학교에서 교수연구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행시험장 건립사업을 민간현물로 반영 하여 공사 완공 후 시험장으로 이주할 때까지 6년간 사업 추진과 사업단 업무의 중심이 되었다. TF팀에는 이선봉 교수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수 7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시복 박사, 대구·경북의 대표적 자동차부품사 6개 기업(경창 산업, 동원금속, 삼보모터스, 에스엘, 이래오토모티브, 평화발레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2007년 5월 계명대학교에서 개최된 ‘대구 지능형자동차 부품도시 선포식’ 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서의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연관 주체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지역전략산업 발전 전략 확정, 세계 석학 초빙 특강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화를 선포하였다. 선포식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이진우 계명대학교총장, 이명규 국회의원, 김석준 국회의원, 자동차 부품진흥원 이충곤 이사장 외, 자동차부품업체 CEO 48명, 기계·자동차·전자·컴퓨터·교통공학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능형자동차부품도시 선포식

2007년 6월 대구시 정무부시장이 주관하는 자동차부품기업 CEO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인설립 기본재산, 르노삼성자동차의 시험장 건립 참여 불가, 시험장 건립 민자 부담 등을 협의하였으며, 세원정공 김문기 회장, 평화발레오 김상태 회장, 평화산업 김종석 회장, 경창산업 손일호 회장, 세명기업 오유인 회장,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에스엘 이충곤 회장이 참석하였다.(가나다 순)

2007년 7월 산업연구원에서 ITS기반 주행시험장 건립사업 계획을 최종발표 하였으며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사업’ 이 지역 혁신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반이고 사업비는 288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부지는 대구시 박봉규 부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추후 확장을 염두에 두고 미리 10만평을 확보 하였다.

총 비용은 국비 104억 원, 시비 166억 원, 민자 18억 원이었다. 그러나 추후에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 이 확정되면서 2개의 사업을 분리하여 공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비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2개 사업 기간을 일치 시키기 위해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을 거쳐 사업기간이 2013년 2월 까지 순연되었다.

2007월 8월 ‘ITS기반 주행시험장 건립사업’ 주체가 되는 기관명을 정하기 위해 계명대학교에서 에스엘 등 지역 업체 8개사, 대구시, 계명대학교교수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지고 법인명을 ‘대구경북지능형자동차부품협회’ 로 정하였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인가 재단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식경제부 인가 재단설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 9월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ITS기반 주행시험장 건설사업 계획과 재단설립의 지식경제부 인가를 위한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지역산업진흥과 이경진 주무관, 자동차조선과 김창규 팀장, 노용석 서기관, 남궁재용 사무관, 김학송 주무관 참석하였다. 같은 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주행시험장의 기본설계를 맡게 될 IDIADA의 한국사무소 박동호 소장과 현대 남양연구소 주행시험장 구축 당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MOBIS 기능시험팀 박춘석 차장을 만나 시험장 규모의 적정성, 구체적 크기, 향후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7년 9월 대구시에서 대구·경북 자동차부품기업 연구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계획, 시험장 추진계획 발표와 회원사 확대방안, 민간업체분담금 및 법인설립 출연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대구·경북 자동차부품기업 등 49개 기업과 기관이 참석하였다.

2007년 12월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사업’ 의 협약(총괄책임자: 김태권)을 체결하였다. 당해년도 국고보조금은 25.6억 원이며 주관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였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사업’ 은 1단계 사업계획 시점에서 대구·경북 지역 부품업체의 부품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 진행 중 기존의 국내외 실차 주행시험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시험장 규모를 확장하지 않으면 활용성이 적고 시험장의 자립화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단계 확장사업을 통해서 ISO/TC204 표준평가시험 시설을 갖추어 ITS 및 지능형자동차부품 평가 분야에서 범국가적인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한 시험장으로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8년 8월 대구시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 변경을 위해 확장사업이 추가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09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010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8월에는 2단계사업인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 이 결정되었는데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로 3년간, 사업비는 686억 원으로 국비 380억 원, 시비 286억 원, 민자 20억 원이다. 초기 사업비와 합하면 974억 원 규모의 예산이다. 총 부지는 394,965m²로 확대되면서 주행시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 재단 및 조직

2008년 2월 대구은행 본점에서 재단법인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창립 발기인대 회를 개최하고 에스엘 이충곤 회장을 초대 이사장, 계명대학교 김태권 교수를 사업단장(전무이사)으로 선임하였으며 재단 임원 25명을 확정하였다. 임원으로는 정부 기관 및 대학에 서 대구시 박광길 국장, 경상북도 박성환 국장, 기획재정부 김창규 팀장, 계명대학교 김태권 교수, 경북대학교 노동일 총장, 경일대학교 김성동 총장, 계명대학교 이진우 총장, 영남대학교 우동기 총장, DGIST 이인선 원장, 대구테크노파크 장옥현 원장,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이후상 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영상 원장이, 기업으로는 일지테크 구본일 대표, 세원정공 김문기 회장, 평화발레오 김상태 회장, 한국텔파이 김영범 전무, 평화산업 김종석 회장, 상신브레이크 김효일 대표, 경창산업 손일호 회장, 모토닉 심상학 대표, 태창공업 여두용 대표, 세명기업 오유인 대표, 평화오일씰 윤여익 대표, 동원금속 이은우 대표가 선정 되었다.(가나다 순)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임시이사회 및 재단출범행사

2008년 4월 재단법인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으로 승인을 득하고 5월 제1회 임시이사회 및 재단법인 출범행사를 개최하였다. 임시이사회에서는 5명의 임원을 추가 선정하였는데 가톨릭대학교 서경돈 총장, 대구대학교 이용두 총장, 일진베어링 박종승 대표, 화신 정서진 대표, 티에이치엔 채석 대표가 그들이었다. 동시에 사업단이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재단으로 이관되었다.

2008년 3월에 직원이 처음 채용되었다. 첫 직원으로 평화정공에 재직하였던 이태희 주임,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재직하였던 우중운 주임, 모토닉에 재직하였던 임태호 주임과 김명일 연구원, 주성원 행정원, 박은정 행정원이 들어와서 총 6명의 직원으로 출범하였다. 2009년 12월 사업단장이던 김태권 교수가 학교로 복귀하고 계명대학교 이선봉 교수가 사업단장이 되었다.

2010년 1월 조직은 단장과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기술기획실은 박근배 실장, 임태호 주임, 우중운 주임, 이태희 주임으로, 인프라구축팀은 정춘수 팀장(공무원), 김명일 연구원으로, 업무지원팀 권기달 팀장(공무원), 주성원 행정원, 박은정 행정원으로 구성되었다. 10월에 박근배 실장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한국텔파이 수석부장 출신의 허경국 실장이 연구기획실장으로 들어왔다.

재단의 초기 정관, 조직체계 등 전반적인 구성 관리체계는 대구시에서 파견 나온 권기달 팀장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였다. 주변 기관과 정부의 규정들을 비교하고 철저히 검토해서 공공기관의 역할에 잘 부합하도록 작성한 정관과 규정이 재단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2011년 1월 조직/인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허진 주임이 연구기획팀으로, 하이버스테크 이사로 재직하였던 김무준 선임이 업무지원팀으로, 이승재 주임이 인프라구축팀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조직은 단장과 2실 4팀으로, 이선봉 단장과 연구기획실 허경국 실장, 연구기획팀 임태호 주임, 시험평가팀 우중운 주임, 김명일 주임, 건설행정실 전명환 실장(공무원), 인프라구축팀 김병환 팀장(공무원), 이태희 주임, 이승재 주임, 업무지원팀 권기달 팀장(공무원), 김무준 선임, 주성원 행정원, 박은정 행정원으로 구성되었다. 그해, 5월에는 공사 담당으로 일진엔지니어링에서 재직하였던 하성용 주임이 입사하였다.

2013년 2월 재단 운영위원이 선임되었는데 위원장은 에스엘 이충곤 회장, 위원은 재단 이선봉 전무, 대구시 김종한 국장, 평화발레오 김상태 회장, 평화산업 김종석 회장, 경창산업 손일호 회장,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동원금속 이은우 회장(가나다 순)으로 8명이 임명되었다. 당시 대구시 담당은 권성도 기계자동차 과장이었다.

11월에 운영 책임을 이사장에서 원장으로 바꾸었다. 재단명칭도 변경하였다. 기존의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KIAPPI)’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 로 명명하였다.

2014년 3월에 이선봉 단장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조직은 2본부 4실 체제로 강화하고 인원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선봉 원장과 연구기획실은 연구기획본부로 변경해서 허경국 본부장이, 연구기획팀은 Lab시험평가실로 변경해서 임태호 주임,

허진 연구원이, 시험평가팀은 실차시험평가실로 변경해서 우중운 주임, 이태희 주임, 박지수 주임이 담당하게 되었다. 건설행정실은 건설행정본부로 변경해서 박정환 본부장(공무원)이 인프라구축팀은 시험장관리실로 변경해서 현병철 실장(공무원), 이태희 주임, 하성용 주임이, 업무지원팀은 행정실로 변경해서 김무준 실장, 손형일 주임, 박은정 행정원으로 구성하였다.



초대원장 취임식

이사회는 15명으로 이사장 에스엘 이충곤 회장, 대구시 홍석준 국장, 경상북도 송경창 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준 과장, 진흥원 이선봉 전무,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 자동차부품연구원 허경 원장, 군산대학교 최규재 교수, 한양대학교 허건수 교수, 세원정공 김문기 회장, 평화발레오 김상태 회장, 한국텔파이 김용중 대표, 평화산업 김종석 회장, 경창산업 손일호 회장, 동원금속 이은우 대표,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가나다 순)로 구성되었다. 2014년 7월에는 1개월에 걸쳐 대구시 행정감사를 받았고 사업 진행 중 집행 오류 등 미미한 안전에 대한 3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첫 공식 감사였다.

■ 공사 및 장비

시험장 부지는 현 위치와 더불어 대경연구원이 제안한 구지면 창리 하천부지, 경상북도에서 추천한 영천시 청용면 일원, 금호강 고수부지, 위천 삼거리 낙동강 고수부지가 같이 검토되었으나, 2008년 1월 들어서 최종적으로 구지면 창리로 건립예정지를 확정하였다.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현대엔지니어링과 한백종합기술공사와 체결하면서 설계가 시작되어 10개월만인 2009년 2월에 완료되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규모의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6개월간 지연되었다. 낙동강변이라는 입지 때문인지 가마터로 추정되는 유물들로 깨어진 자기 그릇의 조각 일부가 나왔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지 않아 10월에 완료되었다.

문화재 조사는 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비용은 2억 원이 소요되었다.



문화재 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외 주요 시험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하였다. 스페인의 IDIADA, 영국 MIRA, 일본 JARI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GM 청라시험장, 화성시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고 비교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구 시험장의 규모가 작아 주행시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주변의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시험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드러났다. 급히 사업을 재검토해서 시장의 재가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확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정재로 주무관(현, 미래형자동차과 과장),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대구시에서 파견된 김홍일 주무관의 역할이 컸다. 특히, 김 주무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주도적으로 확장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기관에서 토지보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요청이 들어오고 이 때문에 부지 보상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0년 5월에 토지보상을 착수하게 되었다. 2010년 10월 드디어 공사가 착수되었다. 2011년 1월에 7개월간의 토지 협의보상도 완료되어 공사 진행을 순조롭게 하였다.

2008년부터 각 기업들의 투자금을 모아 사업에 투입하였다. 기업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었다. 대구에 3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기업별로 매출실적에 따라 기부금 액수를 정해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매출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출연하였다. 에스엘, 한국델파이, 평화산업, 평화발레오, 경창산업, 동원금속, 모토닉, 화신이 1억 원 이상을 출연한 기업이다. 삼보모터스, 상신브레이크, 티에이치엔, 한국파워트레인이 5천만 원 이상, 세원정공, 일지테크, 평화오일셀, 일진베어링, 아진산업, 평화정공, 효림산업, 태창공업, 세명기업, 대리정밀, 대철, 대한소결금속, 삼익KIRIU, 체시스, 퓨전소프트가 기업 규모에 맞추어 1천만 원 이상을 출연하였다.

확장사업의 민간 부담금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초 넥센타이어의 자체 시험장 건립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 당시 이선봉 단장은 넥센타이어를 방문해 넥센타이어에서 직접 시험장을 건립하는 대신 대구 시험장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협상을 통해 PBN, wet-grip, hydroplanning, wet handling로 등을 구축하기로 하고 16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또한, 당시에 현대자동차 그룹으로부터 8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금은 이충곤 회장, 이재하 회장, 손일호 회장, 이선봉 단장 등이 현대자동차를 찾아가 출연금을 요청하였고, 정몽구 회장은 지역 자동차부품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8억 원의 출연금을 결정하고 다음날 입금되었다.

마지막으로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필요한 시험로 5개를 구축하는 조건으로 6.4억 원을 투자하였다. 당시 대구시는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유치를 진행했고,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장인 김중희 전무와 시험장 건립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MOU를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르노삼성자동차가 시험장 건립에 일부 투자하기로 하고, 한편, 대구시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요구하는 시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르노삼성자동차의 주력차종인 SM5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장 건립 및 시험장 건립 참여 등 모든 일이 없던 일로 바뀌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영사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초기 담당자들이 인사이동 되어 초기 6.4억 원 중에 3.2억 원만 받고 나머지 3.2억 원을 추가로 받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13년까지 47억 5천만 원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졌다.



시험장 건립 기공식

2011년 4월 기공식을 가졌다. 대대적으로 진행된 기공식 행사의 공식명칭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기공식’ 으로 명명되었고 주요 참석 인사로는 관계에서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연창 대구시 부시장, 이삼걸 경상북도 부지사, 김문오 달성군수가

국회의원으로는 박근혜 의원, 이한구 의원, 유승민 의원, 이명규 의원, 서상기 의원, 최경환 의원, 조원진 의원이 참석하였다. 산업계에서는 대구은행 하춘수 은행장, 경창산업 손일호 회장,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평화발레오 김상태 회장, 한국델파이 지기철 대표가 참석(가나다 순)하고 기타 KBS대구 방송국 강성호 총국장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이기섭 원장이 참석하였다.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약 1,000여명의 하객을 모시고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행사준비 과정 중 돈사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와 준비하는 동안 심각하게 대응하기도 하였다.

2012년 2차 공사가 착공되었다. 3월에는 인근 돈사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 공사 소음으로 인해 돼지 사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송은 12월에 법원에서 기각처분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8월에 완료되고 11월에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 중에 당초 설계보다 지반이 약해서 지반보강 공사비용이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사업비 사용에 대한 난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 기반구축사업과 확장사업의 사업비가 섞여 사용되면서 지식경제부 실무자들의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강력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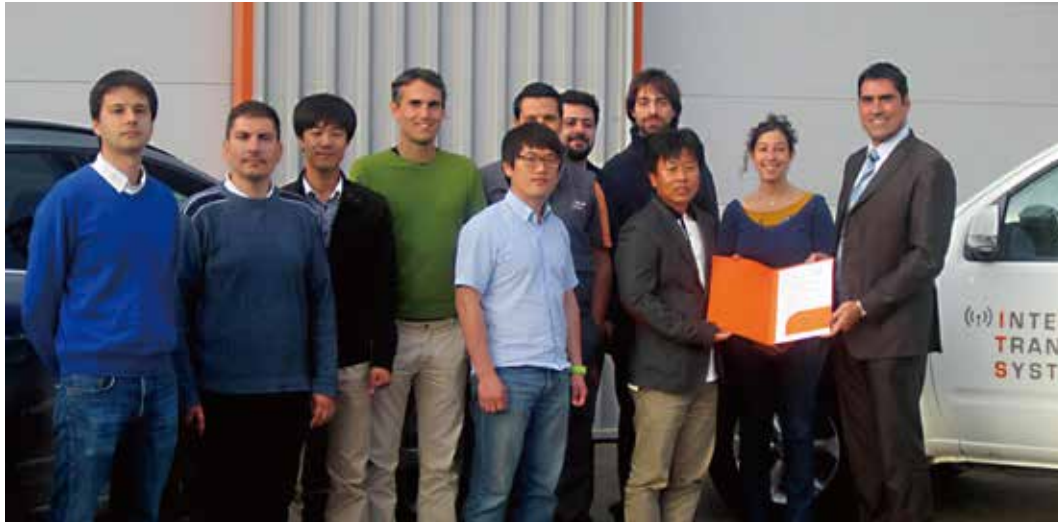
당시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지식경제부에서는 별도의 사업 평가를 하는 등 사업추진이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실무진에서 도저히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게 되어 담보상태에 빠졌을 때,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김삼모 과장이 해결방안의 제시하고 대구시 권성도 과장, 김병환 팀장이 사업비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조정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 주요 문제 사항은 건립 및 확장사업의 설계, 공사를 동시에 추진한 것인데 그 사유는 공사비 절감(고속주회로 일괄시공, 여성토의 사토반출, 설계·감리·문화재 통합 시행, 공사 낙찰률 하락 등)을 위해서였다. 그 절감비는 물가변동, 공사 설계변경으로 사용한 것으로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 당시 진흥원에서는 하성용 주임이 이와 관련된 서류정리를 깔끔하게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2013년 6월 뱅크부 공사가 장비와 기술이 없어서 난관에 부딪혔다. 시공사인 동진건설에서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다. 무엇보다 뱅크 공사에 필요한 전용 장비를 구할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에스엘 김재만 사장이 내놓았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중재해 주었다. 이 일 때문에 공사가 6개월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 장비를 구할 수 없었다면 공사 진행이 상당한 난항에 부딪혔을 것이다.



뱅크부 공사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실무진을 구성해서 스페인 IDIADA에서 운전 교육을 받았다. 앞으로 시험장이 완공되면 실차 시험장비와 함께 시험 장비를 운영할 전문 시험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교육이었다. 3월에 박지수 연구원과 이태희 주임이 드라이빙 교육을 받았고, 8월에는 우중운 주임이 추가로 참여해서 세 명이 ADAS testing 교육을 두 달간 받았다. 이때에 IDIADA와 MOU를 체결하였다.



IDIADA와 MOU 체결

장비는 지능형자동차부품의 통합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기업의 수요조사를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거쳐 실차 성능내구 장비 2종, 지능형자동차 부품 성능평가 장비 8종 및 내구평가 장비 3종 그리고 통신시스템 평가 장비 1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2월에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본부를 대구시가 유치하고 시험장 내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8월에는 대구시 홍석준 국장이 담당으로 부임하면서 운영위원으로 합류하였다.

10월에 기본적인 건축공사가 완공되었다.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12월에 조직을 본격적인 운영체제로 변경하고 사무실도 계명대학교캠퍼스 내에서 시험장 내로 이전하였다.

2014년 4월 준공식이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7년, 공사를 착공하고 3년 만이다. 이선봉 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동진건설 김철환 소장에 대한 유공자 표창 수여와 이충곤 이사장의 환영사, 김범일 대구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국장의 격려사가 뒤따랐다. 유공자는 진흥원의 우중운, 이태희 선임, 허진 주임, 손형일 주임이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내빈 시험장 버스 투어와 기념식수 이벤트가 있었다. 참석한 주요 인사는 관계에서 대구시 김범일 시장,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국장, 국회의 김상훈 의원, 홍의락 의원, 달성군 김문오 군수, 주요기관에서는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KBS대구 방송국 김덕기 총국장, 대구신문 최재왕 사장, 경일대학교 정현태 총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경원 원장, 경북차량용임베디드 기술원 광병원 원장, 경북그린카부품연구원 김성경 원장,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권영각 원장,

업계에서는 발레오 김성호 사장, 한국델파이 김용중 대표, 르노삼성자동차 김홍식 연구소장, 모토닉 심상학 회장,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동원금속 이은우 회장, 화신 정서진 회장, 넥센타이어 한민현 부사장이었다.(가나다 순)



개원 기념식수



시험장 준공식

■ 대구주행시험장 건립 변천



2011. 06. 01.



2011. 12. 19.



2012. 04. 27.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2013. 02. 23.



2013. 11. 12.



2014. 04. 02.

10년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Korea Intelli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te 2008-2018

빛나는 태동의 10년에서 찬란한 도약의 10년으로

5

주행시험장을
시작하다

6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를
준비하다

5

주행시험장을 시작하다

2014년

2014년은 시험장을 준공하고 조직을 원장 체제로 변경하여 본격적인 시험장 운영을 시작한 해만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험 장비 구축 및 PG시험장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이 검토되었다.

11월에 제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튜닝카레이싱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82명의 레이서가 참가했고 관객 수는 약 500명으로 추정되는 행사를 치렀다. 개회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 문승욱 국장, 문상민 서기관, 대구시 권영진 시장과 김연창 부시장이 참석하였다. 초기에 레이싱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안했으나 진흥원에서는 반대했었다. 일반 차량 시험용으로 건설된 도로에서 레이싱 대회를 하면 노면이 손상될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추가로 진흥원 조직이 이런 대회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이 적극적으로 대회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에서는 지원할 예산이 없어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대회를 진행하였다.

12월에는 연초에 신청한 단축 복합환경 진동시험기에 대한 KOLAS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제 공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5년

2015년은 시험장을 준공한 후 일 년을 보내는 시점으로 아직 조직과 업무는 출발 단계에 있었고 초대 원장인 이선봉 박사가 학교로 복귀하면서 2대 원장인 성명호 박사가 취임하고, 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다.

■ 주행시험장 운영

2015년은 주 고객인 넥센타이어가 주행시험장을 주로 사용하는 한 해였다.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홍보차원의 많은 기업 방문이 진행되었다. 추가로 튜닝사업이나 대체부품 인증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하반기에 들어서 고객 중심의 운영체계를 도입한 것이 10월 이후에 시험장 사용 고객을 크게 늘이는 효과를 보았다. 시험장에 시험하려는 차가 시험장 운영시간에 맞추어 시험하기 어려운 점과 시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이 대구까지 시험하러 오는 엔지니어들의 큰 호응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 실차시험평가실 업무

정부과제의 시험 및 평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카톡 사업과 BAS 및 AEB 평가 과제가 있었다.

3월에 현대자동차 전문 용역업체인 Ciel-S와 연결되면서 현대자동차와 ADAS분야의 LDWS 과제를 시작하였다. 이 과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여러 개의 과제를 수탁 받았다.

■ 대구시 업무 지원

- 튜닝카레이싱 대회

10월에 제2회 튜닝카레이싱 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식 명칭은 ‘제2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배 튜닝카레이싱 대회’이다. 행사진행은 모터스포츠 이벤트를 전문으로 기획·주최하는 KMSA에서 담당하였다. 경기 레이서 80명, 관객 1,500명, SNS 중계시청자 4,500명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작년과 달리 행사 대행사에서 경기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어서 행사 후에 만족스러운 행사로 평가되었다. 주요贵宾으로는 대구시 김연창 부시장, 국회 이종진 의원, 달성군 김문수 군수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달성경찰서 33명, 대구시 12명, 소방서 4명 등 주변 기관 지원이 50여명이나 되어서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진행한 행사가 되었다. 부대행사로 관객들을 위해 드리프트 택시, 짐카나, 키즈존, 푸드 트럭, 특수로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병행하였다.

제1회 대회에서의 사고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였다. 또 작년 사고자가 사고보상을 요구하며 제2회 대회에 대한 협박을 하여 대구시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달성경찰서에 지원 요청으로 경찰병력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행사 당일 당사자가 행사장에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별 문제없이 경기가 진행되었다.



제2회 튜닝카레이싱 대회

-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진흥원에서 개최되었다. 총 10개 대학이 6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통해 제작한 자동차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제작한 차로 주어진 미션을 얼마나 빨리 성공적으로 주행하느냐를 겨루는 대회였다. 제2회 대회인 이번 대회를 진흥원에서 개최하면서 대구시와 진흥원이 후원기관이 되었다.

■ 일반행정

- 인사

2월에 초대 원장인 이선봉 교수가 퇴임하고 학교로 복귀하였다. 후임원장이 취임하기까지 3개월의 공석 기간 동안에는 원승찬(공무원) 본부장이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5월에 현대자동차 출신의 성명호 박사가 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대 성명호 원장 취임식

조직은 2본부 4실 체제로 유지되었다. 직원은 15명으로 이선봉 원장과 건설행정본부에 원승찬 본부장(공무원)과 시험장관리실 이태희 팀장, 하성용 주임, 김기주 주임, 김재식 기술원이, 행정실에 김무준 실장, 손형일 주임, 박은정 주임이, 연구개발본부에는 허경국 본부장과 LAB 평가실 임태호 팀장과 최용준 주임이, 실차시험평가실에 우중운 팀장과 박지수 주임, 허진 주임이었다. 손형일 주임과 박은정 주임이 퇴사하면서 4월에 달성군 공무원 협의회에서 재직했던 이진욱 연구원과, 5월에 퓨전소프트에 재직했던 양영호 연구원이 입사하였다. 또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차시험평가실에 이도훈 기술원과 LG전자에 재직했던 황윤미 연구원이 입사하였다. 6월에는 이노테스에서 재직했던 심재록 주임이 입사해서 인원이 부족하던 내구장비 업무에 투입되었다. 9월에는 NVH 담당으로 한국델파이에 재직했던 김선구 선임이 입사하고 우중운 팀장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 가면서 퇴사하였다. 우중운 팀장의 후임으로 11월에 경북대학교 3D융합 기술지원센터에 재직했던 오세일 실장이 전략기획 담당으로 입사하였다.

－ 주요행사

7월에 전 직원들과 산청에서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산청의 펜션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전 수립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레프팅과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친목을 다졌다.

11월에는 시험장에 입주해 있던 넥센타이어 시험센터 직원들과 함께 시험장에서 추계 체육대회를 하였다. 두 회사가 같이한 행사로는 첫 행사였다. 여러 종목으로 경기를 했지만, 체력에서 진흥원이 많이 밀려서 다음에는 진흥원 직원들이 유리한 종목만으로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016년

2016년 한 해는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 특히 새 해 첫 날부터 르노자동차에서 주행시험장 사용을 늘리겠다는 전화를 시작으로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준 자동차과장이 자동차융합얼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 주행시험장 운영

주행시험장의 경우에는 주 고객이 넥센타이어에서 르노삼성자동차로 바뀌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 공장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로 시험하던 차량을 대구시험장으로 이동하면서 대구 시험장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진흥원에서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먼저 주말이나 평일 24시간 주행시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다.

처음에는 실제로 시험장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PG 운영실 전 직원이 시간외 근무와 주말 특근을 하면서 대응하였다. 실제 근무해보니 직원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관제실에서 새벽부터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을 별도로 두게 되었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연구소장인 권상순 전무가 진흥원 시험장을 직접 둘러보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하반기에 가서 작년에 검토하던 Dust tunnel과 GEX 시험장 구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공사비를 르노자동차 본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니 진흥원에서 공사비를 분담해서 지어줄 수 없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진흥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다양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 실차시험평가실 업무

현대자동차로부터의 시험 의뢰용역이 급격히 늘어났다.

새시 다이내모에서의 연비 측정 의뢰가 늘어나서 담당인 최용준 주임이 혼자서 5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최 주임의 시간외 근무가 너무 많아져서 엄준식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했지만 시간 외 근무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NVH 용역은 용역 전문업체 Ciel-S와 연계되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담당 인원이 지난 가을에 입사한 김선구 선임 한 명이어서 아직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 2월부터 김선구 선임은 NVH 용역을 수행하느라 거의 남양에서 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7월에 이학주 주임을 채용해서 투입을 했지만 연말까지 김선구 선임은 거의 남양에서만 지냈다. 일 년 동안 10개 이상의 용역이 진행되었다.

ADAS 평가 용역은 ADAS분야의 현대자동차 유제명 마스터가 진흥원과 같이 평가 업무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확대되어갔다. ADAS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음 해에는 좀 더 고난이도의 기술 분야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ADAS 관련 부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개발된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은 달리 없는 상황이었다. 진흥원에서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이런 평가기술을 확보한다면 국내에서 ADAS 평가 부문에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참여하였다.

11월에는 현대자동차 고성능차개발실의 현영진 책임이 유제명 마스터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성능차의 ADAS 평가 업무를 같이하자는 제안을 하여 2017년부터는 더욱 이 분야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 전략기획실 과제

2015년 11월에 입사한 오세일 실장이 처음으로 확보한 과제가 지역전략산업이다. 이를 시작으로 오세일 실장은 많은 과제 기획에 참여하고, 자동차융합얼라이언스 업무도 담당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개선해 갔다. 특히 대구시 자동차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었다.

- 지역전략산업과제 참여

정부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려는 산업을 지원하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지역별로 2개씩 선정을 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2015년 12월 초에 규제 프리존을 지역별로 정하면서 지역전략 산업이 발표되었는데, 대구시는 자율주행차와 첨단의료 Iot사업으로 결정되었다.

11월에 이에 대한 제안을 할 때 막 근무를 시작한 오세일 실장이 이 일의 기획제안서를 맡아왔다. 처음에는 무슨 성격의 일인지 몰라 다른 기관에서 주저하는 사이 오세일 실장이 일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본격적으로 기획에 들어가면서 대구시 홍석준 본부장과 정재로 과장을 중심으로 5개 과제를 도출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 이재관 본부장, 계명대학교 이선봉 교수, 창조혁신센터 연구항부센터장이 중심이 되어 일이 진행되었다. 예산 규모도 800억이 넘는 대단위 과제이었다. 하지만 연말에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사태가 일어나면서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되었지만 규제 프리존 법안 통과가 안 되어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 ADAS플랫폼 구축 과제

2015년 광역거점사업으로 대구시에서 경선을 통해 선정된 ADAS 플랫폼 구축 사업과제가 후보로 잘 진행이 되었으나 연말에 산업부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하지만 이듬해에 재심의를 통해서 과제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에 합격점을 얻어 4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시험장을 증축하고 관련 시험장비를 구축하게 되어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분야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ADAS 플랫폼 구축 과제 사업계획서

■ 대구시 업무 지원

- 튜닝카레이싱 대회

2015년에 이어 제3회 튜닝카레이싱 대회가 10월에 열렸다. 대회진행 대행업체는 지난해와 같은 KMSA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이 9월이었다. 이번에는 달성군도 참여를 시켜서 지역행사 성격도 가지면서 지역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작년과 달리 대한 핫로드 협회를 참여시켜 그들이 주도하면서 참가선수들이 많이 늘어났다. 200명 이상의 선수가 참여하려는 것을 대회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60명 선으로 조정하였다. 대회 진행 결과 160여 명의 선수와 6,000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하였다. 작년에 70여 명의 선수와 1,500여 명의 관람객에 비교하면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셈이었다.

부대행사로 드레프트 택시는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되, 작년 발생했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량은 한 대씩 출입하게 하였다. 이번에도 인기가 가장 높은 행사였다. 그 외에 특수로 체험, 시뮬레이터 체험 등이 있었고, 슈퍼카 전시 및 예쁘게 꾸며진 차량 전시가 함께 진행되었다. 전시업체도 작년보다 늘어 풍성한 느낌이 들었다. 푸드트럭은 작년의 성공을 거울삼아 많이 왔고, 달성군 부녀회에서도 참석을 요청해 들어왔는데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국회의원추경호 의원과 홍의락 의원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DIFA)

7월 한양대 윤종영 교수가 대구시장에게 제안한 국제 포럼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한양대에 찾아가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국제 포럼 행사는 필요성이 있으나 윤 교수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대구시가 진흥원과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8월 말에 대구시 주관인 미래형자동차과로 변경이 되면서 홍석준 본부장이 진행을 맡았다. 포럼을 세 분과로 나누어 자율차는 계명대학교 이선봉 교수가 전기차는 자부연 김규식 센터장이 튜닝카는 진흥원 오세일 실장이 담당키로 하고 분과위와 조직위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11월 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대구 EXCO에서 자동차공학회 한림원과의 미팅이 포럼에 관한 첫 공식 미팅이었다.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개막식

- 튜닝산업 W/G 운영

1월에 대구시 권성도 과장이 튜닝산업 정책 입안을 위한 W/G을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3월에 첫 회의를 하였다. 대구시 권성도 과장, 삼보모터스 박준영 전무, 평화산업 김주영 실장, 이래오토모티브 장길현 상무, 태창산업 신승하 사장, 상신브레이크 구창희 부장, 남산동 상인회 문구곤 회장, 네오테크 이종고 대표, 영남대학교 황평 교수, 자동차부품 연구원 이봉현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4차례 회의를 하고 9월에 마지막 회의를 하였다.

주요 결정 내용은 튜닝산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레이싱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레이싱장 구축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상시로 레이싱 대회가 열리게 하면, 대구시를 중심으로 모터스포츠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곧 튜닝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업무 지원

- 자동차융합 얼라이언스 사무국

새 해를 시작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준 과장이 얼라이언스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였다.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준 과장으로부터 얼라이언스의 취지와 배경, 진흥원에 이 일을 맡긴 이유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진흥원이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을 맡고 분과는 다른 기관에서 맡게 함으로써 전체 추진기관의 힘을 확보하였다. 세 개 분과의 간사기관으로 전장화 분과는 전자부품연구원의 박상현 센터장, 감성화 분과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임호기 본부장, 그린화 분과는 울산테크노파크의 한정식 센터장이었다. 분과 좌장으로는 대학교수들을 선임하였다.

전장화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명희 교수, 그린화는 호서대학교 김병삼 교수, 감성화는 숙명여자대학교 조문증 교수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급하게 조직을 구성하고 2월 17일에 양재동 엘타워 호텔에서 사무국을 출범하며 첫 행사로 포럼을 진행하며, 강연자는 서울대학교 홍성수 교수였다. 개소식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70여 개 사가 등록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였다.

4월말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진흥원에서 얼라이언스 주요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참석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정책 실장과 김영삼 시스템산업 정책관,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전자부품연구원 박청원 원장, 현대자동차 임태원 전무, 삼성전자인원식 전무, LG전자 조병립 상무, 네이버 운영찬 부사장, MCNEX 민동욱 대표, 오비고 오태안 상무, 에스엘 이충곤 회장, 이래 오토모티브 김용중 회장이었다.

5월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차에 대한 과제를 기획하기로 하고 6월에 장관을 모시고 행사처럼 이 과제를 선포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 제안을 받았다.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간사회의를 하면서 현대자동차 김대훈 팀장과 문성협 과장이 함께 하였다. 주요 자동차메이커인 현대자동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합의를 하였다.

7월에 K-dream car project로 명명하고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8월에 현대자동차는 드림카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관련자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결국 드림카 프로젝트는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기업과의 연계를 강화와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9월부터 조희영 PD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이 이를 주도하게 하는 방안을 세웠다. 12월까지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LGU+, 카카오, 오비고, 성우하이텍, MCNEX, nextchip社가 참여키로 해서 모두 13개사로 확정되었다.

. 주요 행사



자동차융합 얼라이언스 서울전자전 참가

10월, 서울전자전에 공동관을 열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차량 3대와 이미지넥스트, MCNEX, 티노스, cammsys, MDS, 에스엘, 한양정보통신, 모비스, 캠프트로닉스, 세인전장 등 10개 회사가 전시품을 내놓았다. 차량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울산테크노파크, 코니자동차에서 자율차와 전기차를 전시하였다.

분과회의는 5회 진행되었다. 3월에 감성분과와 전장분과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첫 분과회의를 했고 4월에 그린분과 회의가 동대구역에서 있었다. 4월에 감성분과와 전장분과는 서울에서 세미나 겸, 2차 분과회의를 하였다. 5월에 법제도 분과를 발족시켰다. 기술교육대학교 윤희한 교수가 담당하였다. 9월 법제도 2차 분과회의가 있었다.

-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

2015년 11월 제2회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는 자동차부품연구원 주관하고 대구주행시험장에서 진행되었다. 2017년에 3회 대회가 준비되면서 진흥원에서 주최하라는 제안이 조희영 PD를 통해서 들어왔다.

2015년 대회를 주관한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대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초기부터 대회 진행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11월에 조희영 PD와 진흥원 실무협의를 경주에서 하였다. 진흥원 담당은 전략기획실 윤경수 선임으로 정하였다. 충북 진천에 있는 대창모터스에서 중국에서 제작한 차량으로 참여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대창모터스로 업체를 정하고, 자율차 시스템은 충북대학교 기석철 교수팀에서 제작해서 5월까지 제공하기로 하였다. 차량제작이 정해지자 12월에 공고가 나가고 본격적으로 대회가 공식화되어 갔다.

■ 일반행정

- 인사

조직을 기존의 2본부 체제에서 경영기획실과 3본부 체제로 바꾸었다.

행정실을 경영기획실로 바꾸고 전략기획본부, PG운영본부, 주행시험본부를 두어 사업을 추진하는 체제였다.

인원은 2015년 대비 17명에서 33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얼라이언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6명을 충원하였고, PG운영실은 조정, 안내, 관제실 촉탁직으로 3명, 실차시험평가실은 시험인원 4명, 경영지원실은 1명이 충원되었다.

2월에 대구시 원승찬 사무관이 복귀하고 전창환 사무관이 파견되어 왔다.

전략기획실은 2월에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재직했던 배정환 선임, 3월에 서울 컨설팅 회사에서 재직했던 손영진 선임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출신의 허준호 주임, 4월에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강성은 주임, 7월에 PD지원을 위해 영남대학교 박사출신의 윤경수 선임과 ETRI에서 재직했던 채석민 선임이 입사하였다. 경영기획실은 4월에 대구테크노파크에 재직했던 이진원 주임이 입사하였다. 실차시험평가실은 5월에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재직했던 엄준식 연구원, 평화발레오에 재직했던 이시목 연구원, 6월에 내구장비 담당으로 이노테스에서 재직했던 심재록 주임, 7월에 인제대학교에서 재직했던 이학주 주임이 NVH 담당으로 입사하였다.

PG 운영실은 4월 안내 데스크에 백정원 기술원, 5월에 조정담당 노우열 기술원과 관제실 김종호 기술원이 입사하였다.

5월에는 승진인사가 있었다. 입사 때 경력의 조정이 필요해 전원의 경력을 검토하고 재산정하였다. 재산정을 통해 김무준 실장이 책임으로 승진하고 다른 직원들도 경력을 조정하였다. 하성용 주임이 선임으로 양영호 연구원이 주임으로 승진되었다. 10월에 김기주 주임이 선임으로 승진하였다.

- 주요행사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첫 간부 워크숍을 문경에서 진행하였다. 여기서 간부란, 선임급 이상의 직급들을 말한다. 이들이 모인 워크숍은, 각 부서의 수행사업 성과보고와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여 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후,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첫번째로 문화·체육의 날을 신설하였다. 문화·체육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6월에는 첫 행사로 영화 관람, 7월에 치맥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10월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넥센타이어 시험팀과 함께 대구주행시험장 추계 체련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사내 동호회가 형성되었다.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자전거 동호회는 허진주임이, 탁구 동호회는 김기주 선임이, 스크린 골프 동호회는 이태희 선임이 회장을 맡아 직원 간의 친목 도모 활동을 진행하였다.

3월에는 제방 산책로가 만들어져서 직원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 공사

. 튜닝전문지원센터 부지

8월 주관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센터건립 부지 설계를 하면서 건물 용적을 때문에 작년에 협약한 내용보다 더 큰 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협의를 하여 신축되는 센터 건물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부지를 더 내어주는데 합의하였다.

. 수소충전소 건설

2015년 12월 스마트그리드사업 예산이 확정되면서 대구시 에너지과에서 진흥원에 수소충전소를 짓고자 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수소충전소 건립에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운영 인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는 진흥원이 감당해야할 숙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시험장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구축해서 전기료를 매년 일정금액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대구시 에너지과에서 제시하였다. 2016년 7월에 대구시 에너지과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2017년 상반기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 소킹(Soaking) 동 건축

새시 다이내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험차를 소킹하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

차량 부품이 일정한 온도로 8시간 이상 유지된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야 시험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하루에 한두 대의 차량만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동 내에 빈 공간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시험을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수의 시험 의뢰 있게 되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별도의 소킹 공간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수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소킹 동 공사는 8월에 완공되었다.

. RFID 출입시스템 구축

시험장 출입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게이트가 잦은 고장과 관리의 어려움이 많아 RFID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9월에 공사가 진행되었다.

- 기타

「지역 자동차 산업육성 간담회」 개최

대구시장과 기업회장들 간의 오찬이 대구시내 노보텔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 홍석준 국장, 권성도 과장, 정재로 과장이 참석하고 기업에서는 에스엘 이충곤 회장, 평화발레오 감상태 회장,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김용중 회장, 평화산업 김용석 회장,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경창산업 손일호 회장, 동원금속 이은우 회장이 참석하였다. 계명대학교 이선봉 교수도 동석해서 대구시 미래자동차 정책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의견 청취가 있었다.

2017년

2017년은 PG 사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과제를 많이 수주한 성과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내부의 실적 저조로 실차시험업무 수탁과제가 급격히 줄어들고, 새시 다이내모가 침수되어 가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튜닝카 레이싱 대회,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등 많은 행사를 주관하였다.

■ 주행시험장 운영

PG 운영은 르노그룹 차량시험센터 유치와 ADAS 관련 고객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한 해였다.

2016년부터 시험장 사용 확대를 검토하던 르노삼성자동차의 시험은 2017년 3월에 르노시험센터 유치라는 결실을 얻었다. GEX 시험로와 DUST 터널을 구축하여 양산공장에서 진행하던 시험을 진흥원으로 가져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판매차량의 시험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요청한 제안이었다. 총 8억의 공사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며 진흥원 부담금은 기업유치 명목으로 대구시의 지원이 있었다.

협약식에는 진흥원의 성명호 원장과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장 권상순 전무,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서명하였다. 그 해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11월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국내 업체들의 ADAS 부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로연계 시험로의 가동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전까지만 해도 ADAS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연말에 성과 확인을 위한 사용만 있었으나, 당해부터는 기업들의 제품개발이 늘어나서 연중 내내 시험로 사용이 이어졌다.

■ 실차시험평가실 업무

실차시험 수탁은 변화가 큰 해였다. 2016년은 현대자동차의 수탁과제가 20건에 달하여 그 일을 수행하기가 버거웠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의 경영상황이 나빠지면서 현대자동차 수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반기까지는 급변한 상황의 대응안을 찾기에 분주했지만, 하반기부터 ADAS 관련 시험의뢰가 확대되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5월에 주요한 역할을 하던 새시 다이내모가 침수되고 운영이 중단되었다.

설비업체인 AVL에서는 완제품 가격 수준의 비용을 요구하여, 수리를 의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던 중 국내 설비업체인 테시스에서 실비로 수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수리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 하지만 연말까지 이어진 수리는 이듬해까지 계속되었다.

■ 전략기획실 과제

2016년부터 과제 수탁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2017년도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갔다.

- ADAS플랫폼 구축 과제

2017년은 지난 해 선정된 ADAS관련 시험장 확충 및 시험센터 구축 및 장비 구입이 주요 사업인 과제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해였다. 시험장 토지보상은 한국감정원에서 추진하기로 협약을 하고 6월부터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증설 시험장의 설계에 들어갔다. 시험센터 설계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 실증도로 구축 과제

5월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서 실증도로 구축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구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실증도로로 구축하는 과제이다. KT에서 통신 인프라를 전체 인프라 도로 설계는 현대오토에버와 영국 MIRA사가 진행하였다.

- 딥러닝 기반 개방형 EV차량 플랫폼 개발 과제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주행차량의 오픈 플랫폼 개발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오픈 플랫폼으로 개발된 차를 제공하는 과제이다. 자동차융합얼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ICT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획하였고 주관기관으로 차량을 개발하게 되었다. AI기술은 전자부품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10여 개 컨소시엄 기업 및 기관에서 개발하고, 전기차는 대창모터스 초소형 전기차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11월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시작은 2018년부터 진행된다.

딥러닝 기반 개방형 EV차량 플랫폼 개발 과제 계획서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 자율주행 시스템 및 평가기술 과제
5월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서 PG 실증 세부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시험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 및 배터리 reform 사업 과제
전기 이륜차를 개발하는 과제의 시험 부문의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대구의 그린모빌리티의 이륜차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성광LTI가 주관기관으로 DGIST, HMG, KCL, DNV.GL이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한다.

■ 대구시 업무 지원

-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DIFA)
대구시가 주최하는 DIFA에 엑스코와 함께 주관을 하였다. 일 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월에 발대식 및 조직위원회와 분과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직위원장은 자동차공학한림원 이충구 회장, 에스엘 이충곤 회장, 대구시 김연창 부시장이 맡았다. 조직위원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조용석 회장, 자동차부품연구원 김병수 원장, 자동차안전연구원 권해봉 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수입차협회 윤대성 부회장, 현대자동차 이기상 전무, 르노삼성자동차 권상순 전무, 쌍용자동차 이수원 전무, 한국 GM 황준하 전무, 삼성전자 이원식 전무, 한림원 김재만 부회장, 박경석 부회장 산업단지공단 한문식 부이사장, 엑스코 김상욱 사장, 대구시 홍석준 본부장, 진흥원 성명호 원장 등 15명이었다. 진흥원은 포럼을 담당하여 자율차, 전기차, 튜닝카의 세 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각 분과위원들을 통해 준비하였다. 자율차 분과는 계명대학교 이재천 교수, 전기차 분과는 경북대학교 한세경 교수, 튜닝차 분과는 영남대학교 황평 교수가 담당하고 분과별로 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11월에 엑스코에서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현대자동차 권문식 부회장과 르노자동차 질 노먼 부회장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포럼은 70여 명의 강연자와 5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여하였다. 전시장도 160여 개 업체에서 전시하고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하는 성황이었다. 영국대사관이 주도하여 7개 영국 기업 세션이 열렸고, 만찬도 진행되었다. DIFA의 총괄 담당은 배정환 선임이 맡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 튜닝카레이싱 대회

4회 튜닝카레이싱 대회는 10월에 개최되었다. 대회 진행 업체는 모터스포츠 마케팅 전문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 코리아가 맡았다. 대회는 187명의 선수와 4개의 차급별 경기와 13초부터 16초까지의 타임어택 경기가 별도로 진행되어 우승자를 가렸다. 부대행사로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서 짐카나 대회를 별도로 진행하고 슈퍼카 전시, 레이싱 시뮬레이터 운영, 레이싱 카트 체험 및 특수로 체험이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전 해와 비교하면 참가 선수도 확대되고 관중도 처음으로 만 명이 넘어섰다. 대회 당일

주차장은 물론이고 시험장 주변 도로가 모두 주차장으로 바뀔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 주변 도로 주차를 하는 시민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참가 선수가 너무 많아 하루에 행사를 다 진행할 수 없어서 참가자 수를 제한해야만 하였다. 10여 개의 푸드 트럭의 음식들도 완판이 될 정도로 많은 관중들이 참여를 하였다.

– 전기차 보급 행사

대구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흥원에서 주관하였다. 3월에 1천 번째 구매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5월에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전기차 동호인 및 전기 버스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DIFA 행사에 맞춰 대구 전기차 에코앨리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2018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활성화 사업으로 담당은 이진욱 주임이며 2018년도에도 수행 중이다.



2017년 컬러풀 대구 전기차 퍼레이드



대구 전기차 에코앨리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업무 지원

– 자동차융합얼라이언스 사무국

2016년부터 추진해온 얼라이언스는 변환기를 맞았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하는 노력을 이어갔지만, 산업부 이원주 과장, 김윤희 사무관이 전보되어 떠나면서 추진동력을 많이 잃었다.

연초에는 간사기관과 함께 성명호 원장과 허경국 연구위원이 조를 나누어 주요 기업을 방문하여 현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3개월간 총 17개사를 방문하였다. 기업들의 요구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을 반영해 자율주행차를 오픈 플랫폼으로 하는 과제를 기획하고 연말에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 교류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추진하였고, 대기업 중심의 운영 위원회는 검토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회원사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울모터쇼, 한국 전자전 등에 공동관을 열었다.

8월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사무국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선릉역 부근의 빌딩을 임대하였으며, 이곳은 한국자동차 공학회가 입주해 있는 빌딩이다.

-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홍보 및 행사 당일 진행은 한국산업문화재단에서 진행하였다.

1월에 대회 공고를 하고 2월에 발대식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진행하였다. 대회는 진흥원 시험장에서, 차량은 대창모터스의 초소형전기차를 사용하였다.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능형자동차 전기장치 및 부품 제조업체인 이아우토반에서 제작하였다. 차량은 각 대학에 모두 제공하기로 하여 8대를 제작하고 7월에 제작이 완료되어 입고되었다.

10월에 열린 대회는 4가지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해서 실력을 겨루었다.

참여 대학은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동대학교의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충북대학교 팀이 우승하였다.



2017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 일반행정

- 인사

조직은 1실 3본부 체제에서 1실 3본부 9팀 11파트 체제로 변경되었다.

신입 직원은 2월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석사인 김홍익 주임이 PG운영실에, 경북대학교 박사인 조봉균 선임이 전략기획본부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재직했던 손형일 선임이 경영기획실에,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재직했던 김봉섭 주임과 국민대학교 석사출신의 엄취수 주임이 실차평가실에 입사하였다. 8월에 일본 토호쿠대학교 박사출신의 정선호 선임과 폴리텍6대학교에 재직했던 이진영 기술원이 전략기획본부로, ETRI에 재직했던 이혜지 기술원이 경영기획실에 입사하였다. 10월에 한국SGS에 재직했던 조성훈 주임이 PG운영실에 입사하였다. 3월 보직 인사에서는 오세일 실장이 본부장으로, 이태희 팀장과 임태호 팀장이 실장으로, 손영진 선임과 김선구 선임이 팀장으로 보직 발령이 났다. 승진 인사는 이진원, 허진, 박지수 주임이 선임으로, 이진옥과 엄준식 연구원이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2월에 대구시 전창환 사무관이 복귀하고 이창석 사무관이 파견되어 왔다.

■ 공사

. 수소충전소 건설

수소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태양열발전 시설 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되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운영비 보상을 위해 100kW급 태양열 발전 시설이 추가되었다. 5월에는 수소충전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충전소가 완공된 후 가스안전 자격자가 관리를 하여야 함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르노삼성자동차 시험로 건설

르노삼성자동차의 시험로와 동일한 GEX 시험로와 Dust 터널 건설이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1월에 공사에 들어갔다. 본 시험로는 도로연계 시험로에 설치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 시험로

■ 재단 및 이사회

2월에 신년 인사에 따라 대구시 홍석준 본부장과 경상북도 송경창 실장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5월에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및 임기 만료 이사들의 연임을 의결하였다. 4월에 회원사 간담회를 인터넷을 통해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대구시 자동차 정책 설명이 있고 최근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한 강의를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가 진행하였다. 특히 이항구 박사의 강연 내용에 대한 평가가 좋아 5월에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강연을 다시 한번 진행하였다.

■ 기타

- . 주요 인사의 방문으로 1월에 박원순 서울시장, 7월에 중국 TIAA 사무총장 일행이 있었다.
- . 삼일법무법인의 자문 용역을 시작하였다. 다양한 계약이나 거래가 많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위한 용역이다.
- . 3월 인터넷 홈페이지가 중국의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었다. 복구할 수 없어서 신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까지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 . 6월에 제4회 민·군수 차량 시험평가 기술교류회(민군기술교류회)를 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대회로 자동차부품연구원, 현대자동차,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 . 6월부터 8월까지 성명호 원장이 대구 기업 방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대구시 자동차 정책을 설명하고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변화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한 방문이었다. 방문 대상은 회원사 및 중소 자동차부품 회사 20여 곳이었다.

6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를 준비하다

2018년

현재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요 과제

- ADAS플랫폼 구축 과제

급속하게 변화가는 국제 신차평가기준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실차시험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일부 시험장 확장과 장비 및 시설 보강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행시험장 구축 2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87억 원으로 진행된다. 본 사업이 완료 되면 진흥원은 지능형 자동차 산업의 First Mover로서 ADAS 평가지원 핵심 인프라 및 산업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관련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거점 센터 역할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하게 될 것이다. 사업 내용은 ADAS 평가용 주행로봇, 데이터 계측 및 분석시스템, DCPS기반 Car to Car 동특성 시스템 등 평가 장비 구축, 시험연구센터 구축, 범용로 확장(31,000m²) 등으로 ADAS 기술 지원 시설을 강화한다.

-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실도로 기반의 실증평가 기술개발 과제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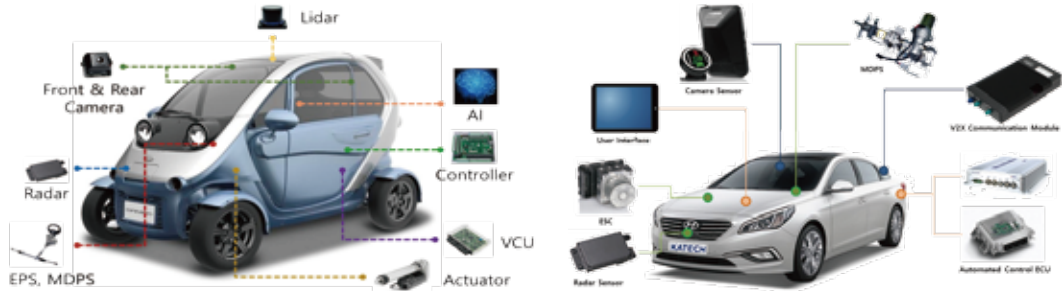
자율주행자동차 예타사업 내의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과 2대 시스템 성능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12.9km 및 도심로 2.35km 일부구간을 활용하여 실도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86억 원으로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자동차 전용도로, 분기로, 교차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실증용 실도로를 기반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시험지원 서비스 플랫폼 개발, 자율주행 실증 평가/지원데이터 전송용 무선 통신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실증용 관제 센터를 구축하며, 자율주행 기술 실증 평가를 위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평가 시나리오, 자동차 전용도로 실증평가 시나리오, 도심로 실증평가 시나리오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차량 내/외부 상황 판단 알고리즘 개발과 자율주행차량 동역학 모델링 기반 Virtual Testbed 및 주행 V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 딥러닝 기반 개방형 EV차량 플랫폼 개발 과제

친환경(EV), 자율주행,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개방형 EV 차량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동차와 이종 산업 간 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25억 원으로 진행된다.



차량 개발

사업 내용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EV 차량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기능 구현을 위한 개방형 H/W, S/W 플랫폼을 개발하여 국내 산학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을 공개하고, 영역 구분이 가능한 Segmentation 기술과 다차선 및 도로마커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 및 공개하며, 공개형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인식·제어 알고리즘, 고성능 멀티 GPU기반 공개형 딥러닝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탑재 개방형 인공지능(인식/제어) 플랫폼, 성능평가 시나리오를 통한 EV 차량 플랫폼 통합 평가 기술, 성능 검증용 플랫폼을 활용한 소형 EV기반 캠퍼스 자율주행 셔틀, 배송 서비스 및 AI 비서 기반 인공지능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 주요 사업

-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DIFA)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트렌드에 대응 및 지역 산업의 성장 기회 마련을 위하여 산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역량을 집결한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로 2017년 제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1월 개최할 계획이다.

4일간 진행되는 DIFA는 미래자동차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조강연과 3개분과(자율주행분과, 전기차분과, 튜닝카분과)의 통합 및 세부 주제별 세션강의로 구성된 포럼과 미래자동차 기술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구성된 전시회 및 대구NIGHT, 전기차 에코갤러리,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32개국, 262개사, 약 54,000명이 방문한 DIFA는 현대자동차 권문식 부회장, 르노그룹 질노면 부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미래자동차 전문 전시회를 선점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튜닝카 레이싱 대회

튜닝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하는 자동차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슈퍼카, 개조차 등 등급별 100~200명의 레이서가 참여하는 드래그 레이싱 경주와 함께 짐카나, 특수로 체험, 카트체험, 무빙모터쇼, RC카 퍼포먼스, 슈퍼카 전시, 레이싱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꾸며진다.

2014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6,000명, 2017년 11,000명으로 지 관객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대표 드래그 레이싱 대회로 성장하였다.

많은 흥미를 일으키는 체험 행사와 이벤트 경이인 짐카나 코너를 신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대중 및 가족단위 관객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모터스포츠 체험 행사로의 발전에서 더 나아가 튜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8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예선전

- 자동차융합 얼라이언스 사무국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자동차와 이종산업 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족되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울산테크노파크 총 4개의 협업기관과 총 16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자동차와 이종산업 기업 간 자발적 협력 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해 오고 있다.

140여개 이상의 주요 기업과 2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협회가 참여하여 상호 간 정보 공유와 협업 기회 탐색을 위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앞장서며, 대형 얼라이언스로 발전하고 있다.

－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

2017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8년 제2회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 R&D의 성과 확산과 대국민 홍보 및 대학의 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 확대를 지원하고, 대학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을 위한 경진대회이다.



2018년 대회는 실제 도로 상에서 수신된 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승객(또는 택배)을 선택하고, 자율주행으로 픽업 및 목적지로 이동하는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픽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자율주행 플랫폼이 적용된 대회용 차량이 제공되며,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통신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실제 도로 상에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구현을 통해 참여 팀의 역량을 겨루게 된다.

2018년 대회는 대통령배로 격상되어 개최하게 될 뿐 아니라 2017년 총 8개 대학팀에서 2018년 총 19개 대학팀 참여로 대회 규모가 확대되는 등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8대 핵심 선도 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폭적인 연구 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경진대회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차량개발, 센서 등 기업에서의 기술교육 수행 및 연구원 기술 지원을 통한 대회 참여 학생의 연구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진입장벽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후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예정된 가운데 대학 간 경쟁을 넘어 기술 지원 및 공유를 통한 협업화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되게 될 것이다.

－ 전력부하관리형 V2X Testbed 구축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스테이션, 용·복합 분산전원(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V2X Testbed 구축 및 운영 하게 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7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게 된다.

분산전원 설치를 통해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력 외에 전기차 충전원의 다각화와 양방향 충전 시스템의 실증 및 기술을 개발하게 되며, V2G 사업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관련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및 사업화를 검증하고, 안정적 실증 사이트 구축을 위한 전력저장장치·터비 부하 및 수소 저장·압축·충전 시설을 갖춘 용·복합스테이션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V2X Testbed 구축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수용가단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전력을 분석하는 등 주행시험장내 피크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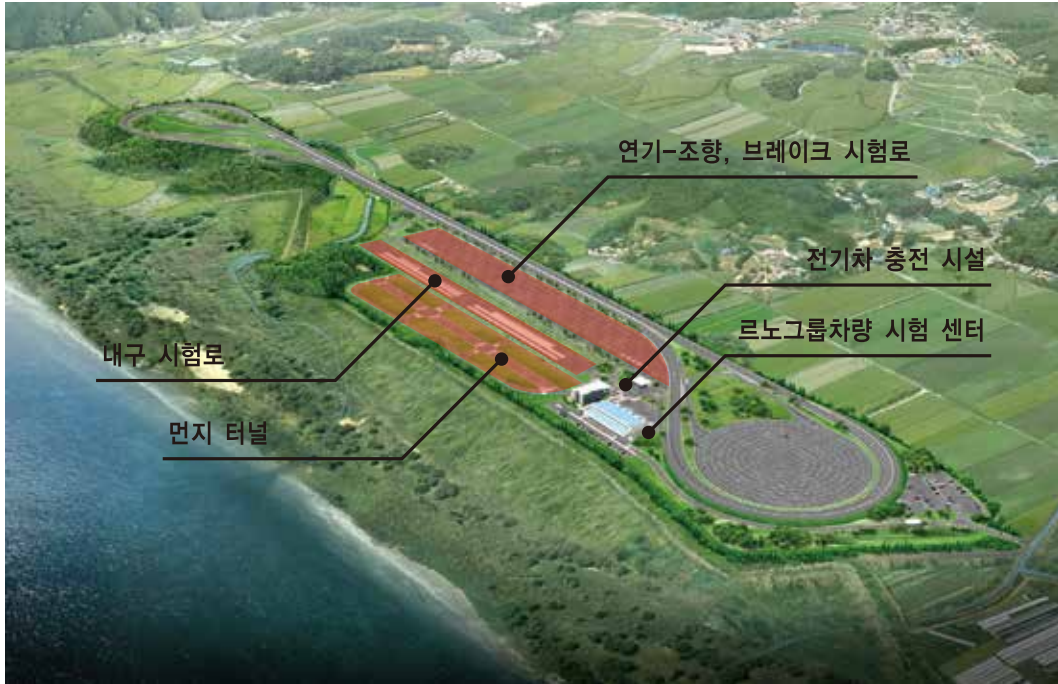


수소차 스테이션



전기차 충전소

- 르노삼성자동차 시험센터 구축



시험 시설 배치도

르노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구축하게 되는 시험센터로 지역의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Testbed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르노그룹의 투자로 차량 시험용 특수 시험로와 유럽형 시험로를 설치하여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메인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세계적 완성차 그룹인 르노그룹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Testbed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구축되는 주요 시험로는 다양한 도로 조건을 반영한 전용시험로 GEX road와 차량 실내 먼지유입 정도를 확인하는 Dust 터널, 주행 중 자갈에 의한 손상을 확인하는 자갈로, 노면에 따라 노출되는 차량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특수로가 있다.

대구주행시험장 원선회로 전경



10년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Korea Intelli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te 2008-2018

7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전기차)를
향해 나아가다

8

KIAPI의 주요 시험장(PG)
및 보유장비

9

KIAPI의 조직

10

MOU 리스트

11

회원사 리스트

7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전기차)를 향해 나아가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갈수록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고도화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 비전과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하려고 한다.

진흥원이 미래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탐색이다.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 조성이다. 미래 비전과 계획 수립을 통하여 분야별 추진계획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위한 준비이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미래에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구성원들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행동 유도이다. 미래 비전과 계획을 통하여 진흥원이 추구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구성원들의 가치와 행동체계에 가이드라인의 제시할 수 있다.

진흥원의 미래비전으로는 'Global Automotive Testing Leader' 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주행시험장 구축,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 주도 등의 다양한 추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진흥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행시험장과 주변 인프라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 주행시험장을 중심으로 주변 실증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진흥원이 보유한 12만평 규모의 주행시험장은 20여종의 시험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및 ADAS 부품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나, 향후 강화되는 규제와 국제 표준에 맞춘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주행시험장의 인프라를 그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맞추어 실증도로 인프라를 인근 지역에 확보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투자를 할 것이다. 또한 원활하게 자율주행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 관리지원 센터, 주행 빅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해서 자율주행 시험 인프라의 사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해외 인증기관,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분석 및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으로 업무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해외진출은 중국·동남아 자동차 인증기관과의 상호 협력 등 자동차산업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정부의 주도 아래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아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험 평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해당 국가의 주요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현지 주요 매체와 전시회를 통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해외 수요 유치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 기술인 ADAS 부품에 대한 장착 의무화 추세에 따라 관련 부품의 성능 시험 및 인증, 사고시 유형 분석 등에 대한 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을 추진한다.

셋째, 시험평가 시스템의 확장 및 고도화이다. 현재 진흥원은 ADAS, 연배기, NVH, R&H 등의 분야에 대해 기업들이 기술 개발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안전성·편의성·연결성·친환경성 등의 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율주행 기능안전과 인프라, 통신 분야 등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진흥원은 시험평가 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 ① 법규 시험 및 기술 개발 시험 지원 확대
- ② 협력형 차량 개발을 위한 V2X 통신 및 검증 기술 개발 지원 시스템 개발
- ③ ISO 26262와 기타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능 안정성 검증 및 평가시스템 구축
- ④ 인프라와 차량 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넷째,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허브로 발돋움 하기 위한 신사업 추진이다. 주행시험장과 실증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실증 인프라를 운행할 자율주행차를 제작해서 관련 기술의 개발능력 확보와 기술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 주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통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나아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컨택티드 기술 및 서비스 분야 개발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다섯째, 기업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및 동반 성장이다. 진흥원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지원 우수사례 발굴, 기술교류회 강화 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중소·중견 기업의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진 전략들을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적인 경영체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개선(Action) 프로세스를 통하여 선진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① 계획(Plan) : 의사결정(투자) 시스템, 유기적 ERP 시스템, 자유로운 의견 수렴 절차 확대를 통한 예측가능한 경영 계획 수립
- ② 실행(Do) : 업무수행 기반 조성, 업무지원 시스템, 직원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의 유연화
- ③ 점검(Check) : 정보공유의 수직화·수평화를 통한 양성화, 점검 프로세스 개선 및 순기능 극대화
- ④ 개선(Action) :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 양성적 상호 견제 절차 도입 등

8

KIAPI의 주요 시험장(PG) 및 보유장비

시험장(PG)

■ 범용로

고속 주회로, 직선로에서 시험할 수 없는 각종 시험, 즉 자동차 동력 관련 시험, 제동 장치 또는 제동 수행 시험과 타이어 개발, BSD, LDWS, LKAS 등 지능형 자동차 시험을 위한 시험로



■ 차량-도로연계 시험교차로

ADAS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된 2개의 4지 교차로와 1개의 3지 교차로로 구성되어 교차로의 상황을 모의 시험하는 시험로



■ 특수로 13종

특수로는 노면 충격 시 차량부품 및 전장품의 충격과 진동 내구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로로서 노면 충격으로 인한 강성, 내구성의 평가가 가능한 시험로



■ 고속주회로

직선로의 뱅크부의 선퇴로로 구성된 주행 시험로로 곡선반경 R=100, 직선거리 1.5km, 최고속도 204km/h 까지 주행이 가능한 시험로



보유장비

■ 자동 조향 로봇 시스템

사용용도
주요사양



동일한 조건에서의 조향 입력(Steering) 시험
Steering Robot(SR60)

- Motor type : Brushless Type
- 최대 토오크 : 70Nm 이상
- 최대속도 : 1,800deg/s 이상
- 각도분해능 : $\leq 0.05\text{deg}$, 각도정밀도 : $\leq 0.3\text{deg}$
- Torque Sensor Type & Performance

■ 브레이크 & 액셀 페달 로봇 시스템

사용용도
주요사양



동일한 조건에서의 제동 입력(Brake & Acceleration) 시험
Braking Pedal Robot BR1000

- 최대 하중 : 1,400N 이상
- 최대 작동속도 : 800mm/s 이상, 최대 스트로크 : 140mm 이상
- 페달 답력 측정용 로드셀

Acceleration Pedal Robot

- 최대 스트로크 : 120mm 이상, 최대 작동속도 : 300mm/s 이상
- 최대 토크 : 150N 이상(70mm), 엔코더 정밀도 : 0.001 deg 이상

■ 4륜구동 새시 다이내모 및 배출가스 측정 시스템

사용용도
주요사양



실도로 부하조건 및 Integrated Simulation Environment 에서
지능형 자동차부품 & 시스템의 성능평가

Chassis Dynamometer 1set

- Max Speed : 260km/h
- Tolerance of Speed Measurement $\leq 0.02\text{km/h}$
- Roll Diameter : 48inch, 4X4

Emission Test System 1set

- Gasoline & Diesel Emission Test System
- Fuel Efficiency Test System

Integrated Simulation Environment Software 1set

KIPI의 조직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본부는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다지고, 진흥원을 ITS기반 자동차 부품 거점 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며, 진흥원 내 PG운영본부, 시험평가본부, 전략기획본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경영시스템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인재 우선주의 및 성과에 기반한 인적자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정주환경의 지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기획본부는 지금도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흥원이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PG운영본부



PG운영본부는 진흥원의 시험장운영, 시설관리, 사업기획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구주행시험장은 넥센타이어, 르노그룹 및 국내·외 76개 업체가 시험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완성차 및 부품의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주행시험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진흥원 내 V2X전기차 충전시설, 수소차 충전소, 워크샵 및 운전자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가오는 미래차 시험의 최적화된 시험장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대구주행시험장의 주요 시험로는 원선회로, 차량-도로 연계 시험로, 범용로, Hydroplaning, 등판로, 고속주회로, Wet Grip, Wet Handling, 특수로(12종) 및 르노그룹 차량시험로(GEX, 먼지터널)를 설치하여 국내외 완성차, 부품생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며, 시험로의 유지, 관리 및 신규사업에 필요한 공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행시험장을 이용한 튜닝카레이싱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튜닝카산업의 활성화 및 주요 국가사업의 유치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업인 ADAS 플랫폼 구축사업, 자율주행 실증도로 구축사업의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여 무인자동차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 및 중국의 해외 차량부품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국외로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본부는 기업지원실과 미래차기획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지원실은 자동차부품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기술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관련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전주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자동차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2월 발족된 ‘자동차융합 얼라이언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융합 얼라이언스 운영으로 OEM, 자동차부품, 통신,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 간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교류회, 포럼, 공동관 구성을 통한 주요 전시회 참가와 기업의 애로사항과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등 전방위적 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차기획실은 KIAPI의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자동차 분야의 과제 수행 및 신규 과제 기획 조직이다. 미래차기획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전기·자율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딥러닝 기반 개방형 EV 차량 플랫폼 개발’ 과제와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실도로 기반의 실증 평가 기술’ 과제 등 국내 자율주행 기술 역량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에 구축된 주행시험장 및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래차기획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자동차 분야 수행 및 기획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가 미래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시험평가본부



시험평가본부는 미래차평가팀, 종합성능평가팀, NVH평가팀, 배기연비평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차평가팀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차량 거동 분야에 대한 실차 시험 평가, 시험 장비 구축·운영 및 R&D과제 협력연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법규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시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고정밀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평가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성능평가팀은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평가를 목적으로 조향, 제동, 등판능력, 실차내구 시험 등을 수행하며, 전기자동차분야에 신규 진입하려는 기업에 차량 인증시험, 컨설팅 제공 및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NVH 평가팀은 NVH 성능과 관련된 시험지원, 인증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NVH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업체의 전문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배기연비평가팀은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 내연기관자동차(무연휘발유, 경유, LPG)와 친환경자동차(HEV, PHEV, EV, FCEV)의 배출가스 평가, 1회 충전 주행거리,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비개선, 배출가스 저감, 전기자동차 개조 등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하고 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리스트

일자	목록
2008.05.30.	자동차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008.12.04.	자동차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서 -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R&D센터, (재)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지능형자동차RIS사업단,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메카트로닉스부품 산업화센터, 경일대학교 자동차부품시험지역혁신센터, 계명대학교 전자화 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계명대학교 저공해자동차부품개발센터, 계명대학교 지능형자동차대학원
2009.05.07.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부지의 토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달성군
2010.01.12.	자동차 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화RIS 사업단,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경일대학교자동차부품시험지역혁신센터 자동차부품HRD사업단, 대구가톨릭대학교 자동차부품디지털설계생산지역기술혁신센터,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
2010.04.06.	대구·경북지역 지능형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 대경창업투자(주)
2010.04.16.	기술협력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정서 - (사)중소기업이업중 대구경북연합회
2010.12.15.	「ITS 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 시험로 구축 및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 - 넥센타이어주식회사
2011.10.19.	「ITS 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 시험로 구축 및 이용을 위한 협약서 - 르노삼성자동차(주)
2012.05.01.	FTA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정보 제공 및 무역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등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일자	목록
2013.10.24.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 대구광역시, 넥센타이어주식회사
2013.10.3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IDIADA Automotive Technology
2014.03.21.	취업 · 교육 · 연구협력 협약서 - 계명대학교
2014.08.27.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을 위한 튜닝전문지원센터 사업 공동 협약 - 자동차부품연구원
2015.01.29.	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일마이스티고,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대경지역본부, 경북대학교코어기술혁신형 겸 산학협력중개센터
2015.07.21.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양해 각서 -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2015.08.19.	지역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과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서 - 전북자동차기술원
2016.01.15.	시험평가분야 및 공동연구개발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서 - 씨엘에스
2016.05.24.	유관 분야 협력연구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016.07.06.	탄소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협약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16.08.26.	공동연구 및 시험 · 인증 · 평가 · 교육 상호협력 양해각서 - 공주대학교 자동차의장및편의부품지역혁신센터
2016.10.05.	의뢰 시험 업무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FITI시험연구원
2016.12.06.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정밀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공간정보연구원
2017.03.22.	르노그룹 차량 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 - 대구광역시, 르노삼성자동차(주)
2017.07.18.	자율주행자동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업무협약 - 대구광역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주)영일랩스, 모터웰(주)
2018.03.22.	자동차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 국민대학교

회원사 리스트

연번	업체명	연번	업체명
1	에스엘(주)	27	대리정밀(주)
2	평화산업(주)	28	(주)남선알미늄
3	평화오일씰공업(주)	29	신영금속(주)
4	(주)평화발레오	30	(주)건화트렐러보그
5	한국파워트레인(주)	31	(주)구영테크
6	평화정공(주)	32	삼영공업(주)
7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	33	삼우정밀(주)
8	경창산업(주)	34	신화정밀(주)
9	삼보모터스(주)	35	(주)영진
10	동원금속(주)	36	한국멧와일러(주)
11	(주)모토닉	37	(주)금창
12	(주)화신	38	넥센타이어(주)
13	상신브레이크(주)	39	현대자동차(주)
14	(주)티에이치엔	40	기아자동차(주)
15	(주)일진베어링	41	현대모비스(주)
16	(주)세원정공	42	르노삼성자동차(주)
17	(주)일지테크	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아진산업(주)	4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9	효림산업(주)	45	(주)세원물산
20	태창공업(주)	46	영신정공(주)
21	(주)세명기업	47	미주오토텍(주)
22	(주)대철	48	(주)광진상공
23	대한소결금속(주)	49	나인원(주)
24	삼익KIRIU(주)	50	삼보프라텍(주)
25	(주)체시스	51	(주)이노테크
26	(주)퓨전소프트		

대구주행시험장 특수로 전경

10년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Korea Intelli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te 2008-2018

발행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발행인

성명호

기획총괄

허경국, 이진원

발행일

2018. 0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 43011

Tel : 053-670-7800

Fax : 053-615-0201

Web : www.kiapi.or.kr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10년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Korea Intelli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te 2008-20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 43011
201, Kookgasandanseo-ro, Guji-myeon, Dalseong-gun, Daegu, 43011, KOREA
Tel : 053-670-7800 Fax : 053-615-0201 Web : www.kiapi.or.kr